

정보조직 사서직 역량 및 직무 유형 분석*

An Analysis on Librarian Competencies and Job Type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이지원(Ji-Won Lee)**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하는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조직학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조직 사서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직무 유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도서관의 채용공고 298건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기존의 자격요건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표준 및 전자자원 관련 요구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조직 직무 유형은 크게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과 전자자원, 정보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정보조직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전자자원 교육의 확대, 이론과 실습의 조화, 정보기술 활용의 강화, 새로운 교수 방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librarian competencies and job type to identify the present state of required librarian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education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278 job announcement, the tradi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knowledge of new standard and S/W related electronic resources are required. The job type divided between cluster for the traditional demands and cluster for electronic resourc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proposed the expansion of education related electronic resourc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balance of theory and practice, and the adoption of new teaching method for education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키워드: 정보조직, 사서직 역량, 채용공고, 문헌정보학 교육, 전자자원, 정보기술
organization of information, librarian competencies, job announcement, LIS
education, electronic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임강사(jiwon@cu.ac.kr)

■ 논문접수일자: 2011년 8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11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28(3): 47-64, 201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4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장에서 정보조직은 수집된 다양한 정보 및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자와 연결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의 주제 분석, 분류, 그리고 목록을 비롯한 2차 정보원의 작성과 관리 등에 관한 정보조직학은 문헌정보학의 발전 초기부터 핵심 교육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다.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직 역시 도서관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네트워크의 발전과 웹 환경으로의 변화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내면서 이에 대한 정보조직을 새로운 과제로 내놓았다. 해외의 경우 정보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명에서도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목록사서(cataloger) 외에도 메타데이터 사서(metadata librarian), 전자자원 사서(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가 등장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웹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도서관과 목록의 역할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정보조직 분야에서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상 요건), 국제목록원칙규범(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자원 기술과 접근)와 같은 새로운 원칙과 표준 또한 만

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서관 현장에서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보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양성 교육에서의 개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정보조직학 교육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교과과정 연구, 교육 현황과 방법 연구, 현장의 요구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과 최근 몇 건의 연구가 발표된 정도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하는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조직학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량과 직무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정보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미국 도서관의 채용공고를 사용하였다. 사서의 채용공고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자격요건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정보원인데 국내의 경우 발생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보조직과 같은 직무별로 공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보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규모나 주제 분야 등에서 미국 도서관과 국내의 상황이 차이가 있으나, 국내 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미국 도서관의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의 국내 도서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방법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량과 직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내용분석, 계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는 정보조직학 교육 및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량 및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위해서 정보조직 사서직 관련 채용공고를 298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2.1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사용한 정보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도서관협회인 American Libraries에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서 채용광고 중 정보조직 관련 광고이다.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 게재된 것, 상세 내용이 구인 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어 게시물 내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둘째, 정보조직 분야의 대표적 listserv인 AUTOCAT의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게시물에서 채용공고에 해당하는 키워드(job announcement, job posting, position announcement, position posting)로 검색된 것을 수집하였다. 마찬가지로 중복 게재된 것, 상세 내용이 구인 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어 게시물 내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그리고 정보조직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셋째, 미국도서관협회(AL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Joblist¹⁾에서 Job Category가 Cataloging/Bibliographic Control, Technical Services인 것으로 제한하여 검색된 데이터(2011. 5. 11~7. 22)를 수집하였다. 내용 확인 결과 정보조직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구인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된 것 중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은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총 22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2.2 데이터 분석방법

정보조직 사서직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용 공고 내용 중 수행해야 할 책무(responsibility 또는 duty)와 자격요건(requirement)을 교육, 이론적 지식, 편목 능력, 외국어 능력, 정보기술 능력, 대인관계 및 기타 업무 능력의 총 6개 대범주로 나누고, 이론적 지식, 편목 능력은 각각 하위 범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정보조직 사서직의 직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의 책무를 대상으로 자동색인을 수행한 후 추출된 색인어를 단서로 하여 공고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이재윤 등(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동색인과 불용어 제거, 용어 가중치 설정, 다단계 클러스터링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책무를 기술한 용어들 중 불용어와 주제성이 없는 용어를 제거하였고, 용어 가중치는 문헌내 용어빈도와 역문헌빈도를 곱한 $\log TF \cdot IDF$ 공식(정영미 2005)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사계수는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하여 각 용어 벡터간 유사도를 산출한 후, Ward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을 생성하였다. 우선, 298건의 채용공고를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나누기 위해 평균 10건을 기준으로 30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군집 크기가 5개 미만인 7개의 군집은 이와 가장 유사한 군집과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 총 23개의 소군집이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보다 상위범주의 유형으로 군집을 만들어 상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 생성된 23

1) <<http://joblist.ala.org>>, 최근 두 달간의 구인공고만 게시됨.

개 군집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재윤 등(2007)의 연구와 같이 다단계의 추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9개의 중군집, 2개의 대군집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군집 단위로 대표 주제어를 선정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표 주제어 선정을 위해서 $\log TF \cdot IDF$ 공식으로 각 용어들의 가중치를 공고문마다 구한 후, 각 군집에 속한 공고문별로 동일한 용어의 가중치를 합산한 값이 높은 용어를 선정하였다.

2. 선행연구

정보조직학 교육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교과목 유형과 과목 수, 실제 개설 과목 수 및 개설주기 등과 같은 교과과정 연구, 전반적인 그리고 주제 분석, 전거제어와 같은 세부 분야의 교육 현황과 방법 연구 등 정보조직학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 및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량과 자격요건 분석을 통하여 정보조직학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과 최근 몇 건의 연구가 발표된 정도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 연구 및 최근의 해외 연구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연구와 채용공고 및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량과 자격요건 분석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Joudrey(2002: 2008)는 정보조직학 교과과정에 대한 종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ALA의 인증을 받은 미국, 캐나다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연구에서 정보조직학 교과목의 유형과 과목 수, 실제 개

설된 과목 수 등을 확인하고 변화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Davis(2008)도 ALA 인증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목록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하고,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목록 관련 교과과정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교과목의 유형과 과목 수, 실제 개설 과목 수, 개설주기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평균 3.79개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가장 많이 개설된 유형은 정보조직 개론과 기초 목록 및 색인/초록임을 확인하였다.

조재인(2010)은 미래의 목록 작성 업무에 대한 예측과 사서의 새로운 역할과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차세대 목록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사서 양성 과정 즉 정보조직 교육에서는 자원의 기술과 발견을 위한 정보 조직의 기본 개념과 정보서비스의 사명을 파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업 사서의 재교육 과정에서는 서지적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해하고 도서관의 변화된 환경을 적용하여 현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지현(2010)은 국내에 개설된 정보조직 교과목의 비중과 주요 내용 및 미국의 정보조직 영역의 교육목표, 기본방향,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원리 중심으로 하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과 조화롭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한 사서의 교육문제에 대해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도서관협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서의 역량과 자격요건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 방법

은 인쇄매체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채용공고 분석과 설문조사이다.

정연경(1997: 1999)은 1990년~1997년간의 미국 대학도서관 목록사서 채용공고 292건과 1996년~1999년간의 목록사서 채용공고 200건의 내용 분석을 통해 목록사서의 역할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목록사서에게 필요한 자격요건은 미국도서관협회(ALA) 인증 석사학위, 문헌정보학 전통적인 분류 및 목록 도구에 대한 지식, 주제 배경, 도서관 업무 경력, 도서관자동화시스템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과 같은 전문 지식과 경험에 더불어 감독 및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전문직 활동과 계속 교육 등의 인성과 업무 태도로 조사되었다.

Albitz(2002)는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사서(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에 대한 1996년~2001년간의 채용공고 101건을 분석하였다. 소속 부서는 이용자서비스 부서(Public Service)와 정리부서(Technical Service)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전문직 경력도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와 1~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약 40% 정도씩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행해야 할 책무로는 전자자원 관리, 정보봉사, 서지 교육, 웹 디자인, 장서개발, 도서관자동화/기술 지원, 직원 교육, 편목, 연속간행물 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all-Ellis(2006: 2008)는 자신이 수행한 3건의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목록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하였다. 2000년~2005년간의 목록사서 채용공고 355건과 2006년에 수행한 외국어 능력에 관한 289건의 설문조사를 종합하

여 크게 5가지 항목으로 필요 역량을 관중별, 직무별(신입, 관리자)로 분석하였는데, 교육, 이론적 지식, 편목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이론적 지식은 편목 도구(목록 규칙)와 서지 기술로, 편목 능력은 기술 편목, 전거제어, 분류 체계, 주제 분석, 협력 체계, 외국어 능력으로 세분하였고, 대인관계 기술에는 리더십, 감독, 훈련 등을 포함하였다.

Park과 Lu(2009)는 2003년~2006년간 AUTOCAT listserv에 게시된 메타데이터 전문가(Metadata Professionals) 채용공고 107건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할과 필요 역량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직명으로는 Metadata Librarian, Catalog/Cataloging & Metadata Librarian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메타데이터 전문가가 수행할 책무로는 메타데이터 생성, 업무 조정·감독·기획과 같은 관리 업무, 편목 업무, 전자자원 관리, 최신 동향의 파악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메타데이터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기술은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포함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편목 및 분류 표준에 대한 지식, 메타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전자/디지털자원 관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Han과 Hswe(2010) 역시 2000년~2008년간의 메타데이터 사서 채용공고 86건 및 전통적인 목록사서에 대한 채용공고 85건을 분석하였다. 메타데이터 사서의 필수 자격요건으로는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메타데이터 스키마, 최신 동향 및 새로운 표준)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편목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통적인 목록, 분류 표준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스

키마들에 대한 요구가 뒤따랐다. 메타데이터 사서와 전통적인 목록사서에의 자격요건 비교에서 MARC에 대한 지식의 경우는 두 분야 모두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박옥남(2011)은 대전·충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 37명을 대상으로 정리사서에게 요구되는 항목 및 대학에서의 목록, 분류 학습 및 실습 경험의 도움 유무와 앞으로 목록 및 분류 수업에서 향상되어야 할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목록 및 분류 지식과 메타데이터 형식에서는 국내 목록규칙, 분류표, KORMARC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표준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목록업무시 알아야 할 자료 유형으로는 단행본, 계속자료, 전자자료 순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활용능력 및 웹 활용능력은 기본 및 심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중급자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성 및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분석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목록 수업 및 실습에서 향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실습에 대한 강조, 비도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의 목록 등의 응답이 있었다.

3. 정보조직 사서직 자격요건 및 역량 분석

3.1 수집 데이터 개요

세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총 298건의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채용공고 정보원과 연도별 데이터 건수는 <표 1>과 같다. 연도별 데이터 건수에서 인쇄물로 출판되는 American Libraries의 데이터 건수와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용과 시간면에서 온라인 구인광고가 보다 효과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고 생각된다.

관종별로는 <표 2>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66.8%), 공공도서관(7.7%), 정부기관도서관(5.4%), 기업체도서관(4.4%), 연구도서관(3.0%), 기타 기관(12.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 중에서 각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인력파견업체가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낸 공고 건수이다. 정부기관도서관의 경우 16건 중에 15건이, 기업체도서관의 경우 13건 중 11건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낸 공고이다. 기타 기관에는 박물관, 학교도서관, OCLC와 같은 도서관 협력체, 도서관시스템업체 및 인력파견업체에서 낸 공고 중에서 대상기관의 관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표 1> 채용공고 수집 정보원과 연도별 건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American Library	23	10	4	0	0	37
AUTOCAT	59	63	46	53	18	239
ALA Joblist	0	0	0	0	22	22
합계	82	73	50	53	40	298

〈표 2〉 채용공고 관종과 연도별 건수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대학도서관	61	49[1]	29[3]	28[1]	32	199(66.8%)
공공도서관	8	8[3]	3[1]	2	3	24(8.1%)
정부기관도서관	0	4[3]	3[3]	8[8]	1[1]	16(5.4%)
기업체도서관	2	3[3]	3[3]	4[4]	1[1]	13(4.4%)
연구도서관	6	0	0	3	1	10(3.4%)
기타	5	9[2]	12[10]	8[2]	2	36(12.1%)
합계(인력업체)	82	73[12]	50[20]	53[15]	40[2]	298(100%)

* 연도별 건수 중에서 각괄호 안의 수치는 인력파견업체에서 게시한 공고임

직급별로는 관리자급이 85건(28.5%), 일반사서직급이 213건(71.5%)이었다. 직명에서 catalog(er)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119건(39.9%), meta-data만을 또는 catalog(er)와 metadata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63건(21.1%), electronic resources가 포함된 경우가 22건(7.4%), 기타 94건(31.5%)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technical services만이 포함되거나 serials librarian과 같이 특정 자료유형에 대한 직명이 포함되어 있다.

3.2 채용공고에 나타난 정보조직 사서직 요구 역량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정보조직과 관련된 사서직 역량은 선행연구 및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크게 교육, 이론적 지식, 편목 능력, 외국어 능력, 정보기술 능력, 대인관계 및 업무 능력의 6개 대범주로 나누고, 이론적 지식, 편목 능력, 대인관계 및 업무 능력은 각각 하위 범위로 세분하여 전체 11개의 세부범주로 분석하였다. 각 범주는 채용공고에서 책무와 필수조건(required)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수조건으로, 추가조건(desired or additional)으로 명시하는 것은 추가조건으로 세분하였다.

3.2.1 교육 요건

정보조직 사서에게 요구하는 교육 요건은 249건(83.6%)이 ALA가 인증하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MLS, MLIS)였다. 두 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22건(7.4%)으로 많지 않았다. 기타에 나타난 68건(22.8%)은 ALA 인증이라는 언급이 없는 문헌정보학 분야 석사학위와 학사학위만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주제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주제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사, 음악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표 3〉 참조).

3.2.2 이론적 지식: 목록규칙

목록 작성의 기초 도구가 되는 목록규칙에 대한 지식은 목록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일정 기간의 편목 경험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항목이 120건(40.3%)이었다. 특정한 목록규칙을 명시한 경우는 AACR2가 148건(49.7%), LCRI(Library Congress Rule Interpretations)이 38건(12.8%)이었으며, 최근 발표된 RDA에 대한 요구도 20건(6.7%)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수치는 아니나 채용공고가 정보조직과 관련된 환경 변화를 얼마나 신

〈표 3〉 교육 요건

구 분	ALA 인증 석사학위	추가 석사학위	기타
필수요건	243	4	68
추가요건	6	18	
합계	249	22	

〈표 4〉 이론적 지식: 목록규칙

구 분	일반	AACR2	LCRI	RDA
필수요건	111	134	35	15
추가요건	9	14	3	5
합계	120	148	38	20

속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표 4〉 참조).

3.2.3 이론적 지식: 메타데이터 형식

역시 목록 작성의 기초 도구로서의 메타데이터 형식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인 지식, 메타데이터에 대한 지식, Non-MARC에 대한 지식, 일정 기간 편목 경험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항목이 144건(48.3%)이었다. 특정 메타데이터 형식으로는 MARC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164건, 55%), DC(69건, 23.2%), EAD(47건, 15.8%), MODS(34건, 11.4%), METS(33건, 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은 그 외의 메타데이터로 VARcore, FGDC, PREMIS 등이 있었다(〈표 5〉 참조).

3.2.4 편목능력: 기술편목 경험 및 능력

실제적인 목록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편목 능력 중 기술편목 경험 및 능력에 관해서는 편목 경험을 요구하는 일반 항목이 49건(16.4%) 있었다. 원목(original cataloging) 경험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157건(52.7%), 카피편목(copy cataloging)은 51건(17.1%), 직원들이 작성한 목록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complex copy cataloging) 경험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49건(16.4%) 이 있었다. 기타 항목은 음악자료, 지도자료, 학위논문, 시청각자료 등 특별한 자료유형에 대한 기술편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이다(〈표 6〉 참조).

〈표 5〉 이론적 지식: 메타데이터 형식

구 분	일반	MARC	DC	EAD	MODS	METS	기타
필수요건	128	147	54	40	29	28	36
추가요건	16	18	15	7	5	5	
합계	144	165	69	47	34	33	

〈표 6〉 편목능력: 기술편목 경험 및 능력

구 분	일반	O.C	C.C	C.C.C	기타
필수요건	45	108	21	16	5
추가요건	4	49	30	33	
합계	49	157	51	49	

3.2.5 편목능력: 전거제어
 편목작업에 있어 가장 전문적이고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전거제어이다. 전거제어에 대한 책무나 지식,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58건, 추가요건은 8건으로 전체 66건(22.1%)의 요구가 있었다.

3.2.6 편목능력: 분류능력
 목록데이터에 포함되는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분류 능력을 위하여 분류 체계에 대한 지식이나 분류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반적인 분류 경험이라는 언급은 매우 적었는데, 이는 미국 도서관 대부분이 LCC, DDC와 같이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LCC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채용공고의 67%가 대학도서관이고, 미국 대학도서관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관이 LCC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된다.

LCC 분류체계를 사용한 경험이나 관련 지식을 요구한 경우는 110건(36.9%)이었으며, 199개의 대학도서관 중에는 42.7%에 해당하는 85개 도서관이 요구하고 있었다. DDC의 경우는 34건(11.4%)에 불과하여 LCC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기타 분류체계로는 미국의학도서관 분류체계(NLMC), 미국문서관리국 분류체계

(Superintendent of Documents Classification) 등이 있었다(〈표 7〉 참조).

〈표 7〉 편목능력: 분류 능력

구 분	일반	LCC	DDC	기타
필수요건	7	103	24	11
추가요건	1	7	10	
합계	8	110	34	

3.2.7 편목 능력: 주제 분석
 목록 데이터에 주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 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에 대한 지식과 사용 경험을 요구한 경우는 필수요건으로 119건, 추가요건으로 11건으로 총 130건(43.6%)이 있었다. 그 밖에 19건(6.4%)은 주제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지식 및 MeSH와 같은 주제명표목표나 AAT와 같은 시소러스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3.2.8 편목 능력: 협력체제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활용한 목록작성은 OCLC가 설립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채용공고에서 OCLC 분담편목의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133건(4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협력체제나 서지 유틸리티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는 일반 항목은 매우 적었다. 이는 현재 서지 유틸리티로서 WLN, RLIN 등을

통합한 OCLC의 대표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히 OCLC 분담편목의 활용 경험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 협력체제 활용 경험을 요구한 것은 미국국회도서관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의 세부 프로그램인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 CONSER(Cooperative online serials Program), S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 BIBCO(Monographic Bibliographic Record Program)이 있었다. 기타 항목으로는 SuDoc, OhioLink와 같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협력체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 경험을 요구한 경우이다. 전체적으로는 152건(51%)의 공고에서 한 가지 이상의 협력체제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었다(〈표 8〉 참조).

3.2.9 외국어 능력

다양한 언어의 자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적어도 1개의 외국어에 대한 요구가 필수요건으로 40건, 추가요건으로 45건으로 총 85건(28.5%)이 있었으며,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필수요건 5건, 추가요건 38건으로 총 43건(14.4%)의 요구가 있었다. 외국어 종류로는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어 등이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 언어, 라틴어, 터키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3.2.10 정보기술 능력

정보조직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은 보편화된 일이며, 정보시스템 및 기술 분야를 제외하면 도서관의 다른 분야보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다(최상희 2008).

정보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또는 컴퓨터 사용 능력 등으로 표현된 일반항목은 43건(14.4%)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업무용 S/W 사용 경험에 대한 요구는 채용공고에 나타난 모든 요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205건, 68.8%)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 업무용 S/W 중 가장 많은 요구는 통합도서관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 ILS)으로 Voyager, Millennium, Aleph 등 특정 시스템을 언급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전자자원과 관련된 S/W(ERMS, 링킹 시스템, 메타검색시스템 등), 편목도구 S/W(Cataloger's Desktop, & Classification Web, MARCedit 등), CONTENTdm과 같은 디지털자원구축 및 관리 S/W도 포함되어 있었다. HTML, XML, XSLT 기술이나 웹 디자인, Dreamweaver와 같은 웹 저작도구 등 웹 기술에 대한 요구는 37건(12.4%), Oracle,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사용 능력은 34건(11.4%)이 있었다. 기타 항목 62건(20.8%)으로는 MS-Office 등의 사무용 S/W,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 기타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S/W 사용 경험 등이 있었다(〈표 9〉 참조).

〈표 8〉 편목능력: 협력체제

구 분	일반	OCLC	NACO	CONSER	SACO	BIBCO	기타
필수요건	6	112	11	9	3	2	10
추가요건	1	21	18	4	10	10	
합계	7	133	29	13	13	12	

〈표 9〉 정보기술 능력

구 분	일반	도서관 S/W	웹 기술	DB	기타
필수요건	35	132	22	26	62
추가요건	8	87	15	8	
합 계	43	205*	37	34	

* 필수요건과 추가요건 중복 14건을 제외한 수치임

3.2.11 대인관계 및 기타 업무능력

대인관계 및 기타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요구가 150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 대부분이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다. 리더십/감독 능력에 대한 요구가 127건(42.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팀 환경에서 원활하게 일하는 능력 및 타 부서와의 상호협력 능력을 요구한 경우는 99건(33.2%)이 있었다. 도서관 및 정보조직과 관련된 최신 동향 파악은 69건(23.2%),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능력은 55건(18.5%)의 요구가 있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자세를 요구한 경우가 31건(10.4%) 있었는데, 이는 높은 수치는 아니나 전통적으로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은 정보조직에 있어서 별도로 이러한 서비스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조직 업무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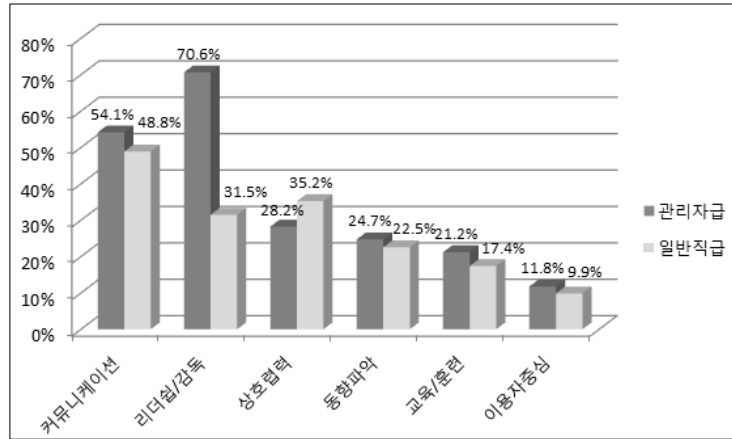
이밖에도 독립적인 업무 수행 능력, 변화하

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계속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문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사서직은 종신제직권과 교수로서의 직급을 보장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업적 및 학술단체의 참여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인관계 및 업무능력에 있어서 관리자급과 일반사서직급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상호협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자급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았다. 다만 리더십/관리 능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예상할 수 있듯이 리더십/감독 능력에 있어서는 관리자급의 요구가 2배 이상 되었다. 교육/훈련의 비율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리자급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직급 사서의 경우에도 업무보조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무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10〉 대인관계 및 업무능력

구 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감독	상호협력	동향파악	교육/훈련	이용자중심
필수요건	143	102	94	62	44	31
추가요건	7	25	5	7	11	0
합 계	150	127	99	69	55	31



〈그림 1〉 대인관계 및 업무능력에서의 직급별 요구 비율

4. 정보조직 사서직 직무 유형 분석

채용공고에 나타난 정보조직 사서직의 직무 유형을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용어 클러스터링을 통해 2.2.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군집, 중군집, 소군집의 3단계로 군집을 생성하였고, 주제어를 검토하여 각 단계의 군집 특성을 살펴보았다.

2가지 대군집(Large Cluster: LC)의 경우 LC1에 속한 채용공고는 총 174건이고 상위 대표 주제어는 metadata, MARC, bibliographic, authority, original, copy였다. LC2는 총 124건이고 상위 대표 주제어에 access, resource, digital, electronic, technology, serial이 포함되었다. 대표 주제어를 통해 LC1은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LC2는 전자자원, 디지털자원, 정보기술과의 연관이 많은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LC2의 경우 serial이 포함된 것은 대표적인 전자자원인 전자저널과 상통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LC2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 metadata가 오히려 LC1의 대표 주제어로 나타난 것은 특이할만한 일인데, 이를 통해 미국 도서관에서는 이제 metadata가 정보조직에 있어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으며, 전자자원을 다루지 않더라도 metadata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기존 자원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9가지 중군집(Medium Cluster: MC)의 건수와 각 군집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표 11〉과 같다.

LC1에 속하는 5가지 중군집을 살펴보면, 가장 큰 건수를 가지는 MC1은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거제어, 대학, MARC이 주제어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가 정보기술과 연관이 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의 목록이 전산화되어 관리되었기 때문에 LC1에 속하는 중군집에서 출현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MC4는 주제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목록작성과 가장 연관이 많은 군집임을 확인할 수 있다. MC7

〈표 11〉 직무 유형 중군집 건수 및 주제어

대군집		중군집		대표 주제어
번호	건수	번호	건수	
LC1	174	MC1	55	metadata, database, authority, university, MARC
		MC4	37	copy, original, monography, head, complex
		MC7	34	MARC, OCLC, authority, clerk
		MC8	24	reference, copy, material, complex, original
		MC9	24	book, processing, shelving, archive, technician
LC2	124	MC2	43	serial, service, manage, technical, acquisition
		MC3	44	system, technology, manage, oversee, leadership
		MC5	23	digital, metadata, repository, institutional, university
		MC6	14	license, electronic, resource, access, e-journal

과 MC8 역시 전통적인 목록작성을 나타내는 주제어가 많았으며, MC7에서는 OCLC가 주제어로 추출되어 자격요건을 확인하니 평균 OCLC 분담편목 경험인 45%보다 20% 이상 높은 68%가 채용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MC8에서는 정보봉사(reference)가 눈에 띄는 주제어인데, 직명 가운데 Cataloging/Reference Librarian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50%에 가까운 채용공고에서 정보봉사 서비스 제공을 책무에 포함하고 있었다. MC9는 장비작업과 사서 보조직원 관련어가 주제어로 추출되었는데, 장비작업의 업무를 주로 하는 임시직, 사서 보조직원의 채용공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 도서관 인력파견 업체의 공고가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LC2에 속하는 4가지 중군집을 살펴보면, MC2는 연속간행물, 기술봉사, 관리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가지고 있었다. MC3는 관리자의 역할과 정보기술과 연관이 많은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MC5는 디지털, 레포지터리, 대학 등이 대표 주제어로 나타났다. MC5에 속하는 23건의 관종을 살펴본 결과 평균 대학 도서관의 비율인 67%보다 훨씬 높은 87%에 해

당하는 20건이 대학도서관에 해당되었다. MC6의 주제어에는 전자자원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개의 소군집의 건수 및 주제어는 〈표 12〉와 같다. 각각의 중군집에 포함된 소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MC1에 포함된 SC1은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급 관련 주제어를 가지고 있었고, SC1의 관리자급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44%로 나타났다. SC5는 주제(subject)가 다른 소군집과 차별화되는 용어인데, 교육요건과 외국어 능력을 확인한 결과 40% 이상의 공고에서 특정 주제 분야나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SC11은 특별한 주제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SC13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제어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MC2에 속하는 SC4, SC19 역시 전통적인 목록작성 연관이 많은 주제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SC4는 48%의 관리자급 비율을 반영하는 주제어도 있었다. OCLC, authority, clerk이 주제어인 MC7에 속하는 SC12는 이 군집에 속하는 채용공고 50%가 요구하는 전자제어가 주제어로 포함되어 있었고,

〈표 12〉 직무 유형 소군집 건수 및 주제어

대군집 번호	중군집 번호	소군집		대표 주제어
		번호	건수	
LC1	MC1	SC1	16	metadata, database, head, leadership
		SC5	17	subject, metadata, bibliographic
		SC11	14	metadata, MARC, standard
		SC13	8	quality, database, authority, metadata
	MC4	SC4	21	coordinator, complex, head, copy
		SC19	16	copy, print, original, MARC
	MC7	SC12	18	control, authority, metadata
		SC20	11	manuscript, subject, MARC, curator
		SC23	5	transcribe, clerk, card
	MC8	SC16	17	reference, public, instruction, complex
		SC18	7	copy, complex, director
	MC9	SC17	11	book, backlog, assist, card
		SC21	7	process, technician
		SC22	6	archive, shelving, process
LC2	MC2	SC2	9	serial, binding, journal, electronic
		SC7	20	service, technical, acquisition, collection
		SC8	14	lead, strategy, plan, budget
	MC3	SC3	11	university, leadership, profession, oversee
		SC6	26	function, technology, oversee, director, plan
		SC14	7	manage, system, administrator, staff
	MC5	SC9	11	metadata, digital, university, harvest
		SC15	12	digital, repository, institutional, technology
MC6	SC10	14	license, electronic, resource, access, e-journal	

SC20은 필사본, 큐레이터, 그리고 SC5와 마찬가지로 주제(subject)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용기관 중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Shakespeare 전문도서관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50% 이상의 공고에서 특정 주제분야나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SC23은 5건 모두가 카드목록을 MARC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도서관 인력파견업체의 보조원(clerk) 채용공고였으며, 주제어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reference와 카피 목록을 보완하는 수준의 편목과 관련된 complex를 주

제어로 가지는 MC8에 속하는 SC16, SC18은 complex라는 주제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SC16에서는 65%의 공고에서 정보봉사 서비스 제공을 책무에 포함하고 있었고, SC18에서는 관리자의 특성이 나타났다. 장비작업과 사서 보조직원 관련어를 주제어로 MC9에 속하는 3개의 군집은 공통적으로 인력파견업체의 공고 비중이 매우 컸으며, SC17에는 미정리 도서 편목을 위한 임시직 채용공고가 많았고, SC22에는 기록관리와 연관된 직명이 50% 차지했으며 장비작업을 나타내는 주제어가 추출되었다.

연속간행물, 기술봉사를 나타내는 주제어를 가지는 MC2에는 3개의 소군집이 속하였는데, SC2는 연속간행물과 학술지가, SC7은 기술봉사, 수서, 장서개발과 관련된 주제어가 나타났다. SC8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주제어만이 상위에 나타났고, 직명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기술봉사와 계속자료를 포함하는 직명이 80% 정도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관리자의 역할과 정보기술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가지는 MC3에 속하는 소군집 역시 비슷한 주제어가 나타났다. 다만, SC3의 경우는 100%가 모두 대학도서관이었고, 이를 반영하는 주제어인 university가 상위 주제어로 나타났고, SC6과 SC14는 의미는 동일하나 사용된 주제어가 상이하여 군집이 분리되었다. 디지털과 레포지터리가 대표적인 주제어인 MC5에 속하는 SC9와 SC15는 메타데이터, 디지털, 기관 레포지터리와 관련된 주제어가 추출되었고, SC15는 SC3과 같이 11건 모두가 대학도서관인 특성이 반영되었다. SC10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MC6과 동일하다.

5. 결론 및 제언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인터넷의 등장과 웹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엄청난 양의 전자자원과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생산하며 이에 대한 정보조직을 새로운 과제로 내놓았다. 이와 같은 도서관 현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조직 사서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

다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이 최근 미국 도서관 사서직 채용공고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세부 직무 유형도 조사하였다. 총 11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정보조직 사서직에 요구되는 자격과 역량에는 전통적으로 열거되었던 AACR2, LCRI, LCC, DDC, LCSH와 같은 편목, 분류, 주제분석을 위한 도구들과 MARC 형식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FRBR, RDA와 같은 서지제어 모형과 새로운 표준, 그리고 전자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 형식의 이해도 요구하고 있었다. 목록 작성을 위한 협력체제에 대한 경험은 절반 이상 요구하고 있었으며, 하나 이상의 외국어에 대한 요구는 30% 정도가 있었다. 정보기술 능력 가운데 도서관 업무용 S/W 사용 경험에 대한 요구는 채용공고에 나타난 모든 요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68.8%)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는 통합도서관시스템에 대한 경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자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S/W(ERMS, 링킹 시스템, 메타검색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 자원 중에서 전자자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자자원과 관련하여 메타데이터 작성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도 함께 고려됨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대인관계 및 기타 업무능력도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요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리더쉽/감독 능력에 대한 요구는 예상하였듯이 관리자급

에서 70% 이상 차지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자세에 대한 요구는 10% 정도로 높은 수치는 아니나 전통적으로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었던 정보조직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채용공고에 나타난 정보조직 사서직의 직무 유형은 크게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과 전자자원, 정보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정보조직을 대표하는 주제어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것은 미국의 경우 이제 메타데이터는 정보조직에 있어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하위 군집들은 직급, 관중, 자격요건, 공고 주체 등을 기준으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정보조직 전문직 양성 교육이 끊임 없이 변화·발전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내 정보조직 교육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자자원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인쇄 자원과의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 도서관의 경우 전자자원의 조직은 하나의 직무 유형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보조직 교육에서는 비도서 자료 등의 일부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정보조직 관련 부서에서 전자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자원과의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폭넓은 접근을 제공하는데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지원 2011). 전자자원의 계속적인 증가는 자명한 일이며, 이에 대한 정보조직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조직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조직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정보조직의 기본 개념, 정보자원의 생성에서 이용까지의 순환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다른 업무와의 관계, 주제분석, 분류, 편목의 기본 원리와 기능 등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의 토대가 단단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정보조직의 이론만을 강조한다면 교육 효과에 있어 한계를 가질 것이다. 물론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선임 사서에게서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 초보 사서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단편적이고 단순한 기능만 강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에서 충분한 실습을 통해 이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단기간 교육만으로도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조직 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정보기술 활용과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자자원 교육 및 실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웹 환경에 정보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서관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웹과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 목록의 현재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며, 다양한 도서관 관련 S/W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 사례 소개 등이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에 도서관 현장의 모습

을 최대한 반영하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교수 방법이나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장실습이나 도서관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대인관계 및 기타 업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등 새로운 교수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

분석적·통합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대하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정보조직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정보조직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보조직 교육이 개선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노지현. 2011. 한국의 자료조직 교육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25-245.
- 박옥남. 2011. 정리사서 전문성 재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95-116.
-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이지원. 2011.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실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1): 221-235.
- 정연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역할 및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2): 143-163.
- 정연경. 1999. 목록사서직의 자격요건과 목록교육의 방향: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제6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1999년 8월 18일-19일. 서울: 연세대학교.
- 정영미. 2005. 『정보검색연구』. 서울: 구미무역.
- 조재인. 2010. 차세대 목록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27-145.
- 최상희. 2008. 구인광고에 나타난 정보기술 관련 사서직 자격요건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39-354.
- Albitz, Rebecca S. 2002. "Electronic resource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A position announcement analysis, 1996-2001." *Portal*, 2(4): 589-600.
- Davis, Jane M. 2008. "A survey of cataloging education: Are library schools listen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6(2): 182-200.
- Joudrey, Daniel N. 2002. "A new look at US graduate courses in bibliographic contro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4(1/2): 59-101.
- Joudrey, Daniel N. 2008. "Another look at graduate education for cataloging and the

-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6(2): 137-181.
- Hall-Ellis, Sylvia D. 2006. “Cataloging electronic resources and metadata: Employers’ expectations as reflected in american libraries and AutoCAT, 2000-2005.”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47(1): 38-51.
- Hall-Ellis, Sylvia D. 2008. “Cataloger competencies ... What do employers requir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6(3): 305-330.
- Han, Myung-Ja and Patricia Hswe. 2010. “The evolving role of the metadata libraria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54(3): 129-141.
- Park, Jung-ran and Caimei Lu. 2009. “Metadata professionals: Roles and competencies as reflected in job announcements, 2003-2006.”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2): 145-160.